



부송팔봉지구대, 6세 어린이 방문해 마스크 기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웃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박모 어린이(6)가 아빠와 함께 부송팔봉지구대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며 마스크 11장을 기부했다.



익산소방서 망성여성의용소방대, 코로나 극복 성금 전달

익산망성여성의용소방대(대장 신향식)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만원을 망성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최근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망성여성의용소방대는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김제농협, 건전결산을 위한 책임자회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인하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제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상임이사를 비롯한 각 부서장 및 과·차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말 기준 가결산을 대비하여 향후 경영관리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린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소속 이도연 핸드사이클 선수

익산시장애인체육회(회장 정현을)은 코로나19사태로 2020년 전국·전세계 체육대회가 거의 취소된 상황하에서도 2021년으로 연기된 일본 도쿄 패럴림픽 대회경기 준비를 하기 전에 익산시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감염병 종식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도연 선수는 “익산시가 2019년도부터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별도의 조직으로 태어나서 익산시장애인 체육인을 위해서 각별한 조직관리, 지원관리 및 지도관리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지위향상과 역량관리 등을 해주셔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 열등감과 신체적인 불편함을 딛고 삶의 질 향상과 삶의 영휘를 할 수 있게 각별한 봉사과 배려를 해주는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과거 이도연 선수는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게임 2관왕,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은메달 획득, 인도네시아 아시아게임 2관왕, 세계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전 등 다수 입상한 바가 있는 여성장애인사이클 종목 선수로서 사이클 외 크로스컨트리 및 노르딕 스키 등 종목까지 참가해서 거의 우승의 영예를 거머쥐는 익산장애인체육회 소속 여성장애인체육인이며 경기 중 완주를 하는 과정에서 “팔등을 해도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릴 의향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호처럼 외친 바가 있다.

특히, 이도연 선수는 고등학교시절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로 평생 설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세 차례 수술함에 따른 부모님 가계 살림이 병원비가 고갈되고 힘든 생활과 우울한 생활이 이어졌고 결혼생활도 평탄

하지 안했지만 누구보다도 소중한 세 딸이 있었다. 또한, 성인이 된 딸 셋이 엄마 이도연이 몸이 불편한 것을 알고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썽 한 번 피운 적이 없으며 홀로 생활비를 벌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그러면서 마흔이 되어 처음 핸드사이클을 접했고 처음 인생의 목표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으며 독하게 훈련해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고 국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게다가 핸드사이클을 한 뒤 우울한 생활이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지면서 핸드사이클 성적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핸드사이클이 삶의 희망이 되었다고 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순창 대성공업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성공업사 백영기 대표는 6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5백만원과 주유상품권 3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은 순창군청 1층 군수실에서 열렸으며,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백영기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백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들이 더욱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고 있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완강기 체험교육장 연중 실시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소방서 내 완강기 체험교육장을 마련하여 교육 신청자 등에 대해 연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파난기구로 순창 소방서는 어린이집·유치원·학생이나 단체 등 체험을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 완강기 체험 전 사용법을 담은 동영상 시청 후 완강기 체험교육장에서 직접 완강기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게된다. 완강기 사용방법 순서로는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아래를 확인 후 줄을 단진다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가 지 걸고 조인다.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이다”며 “많은 순창군민이 완강기 사용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 코로나19 극복 기부 릴레이 ‘나눔의 온기 가득’

정읍시에 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기가 더해지고 있다.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아)는 6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12개 단체 2,60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는 코로나 19 예방 마스크 제작, 김장김치 나눔, 밑반찬 만들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부인회 정읍시지회(회장 김명자)도 6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부인회 정읍시지회 42명의 회원은 소비자 보호 사업과 양성 평등문화 구현사업, 환경보호 운동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은 코로나 19 극복에 작은 힘이라도 보



탬이 되고자 심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을 기탁했다. 정읍시 북면 소재 ㈜우성과 ㈜금강환경(대표 김현중)도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했다. 기탁 받은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정읍시 코로나 19 극복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봄철 산불 조심 적극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가 봄철을 맞아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소각행위 금지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연소 확대해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 금지119안전센터에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금지 등을 위한 예방순찰 및 홍보 ▲산림도로 및 소방차 출동로 위치 확인 ▲산불 대비 대응태세 구축 등에 나섰다.김대근 센터장은 “봄철 산불 화재는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동지구대, 관내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순찰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관내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단력순찰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앞장서고 있다. 도동지구대는 그동안 관내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에 대한 단력순찰을 실시하며 마스크 구매 시 항의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앞장서고, 마스크 구매 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질서유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서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112'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read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It lists reasons to report crimes, such as protecting children and the elderly,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112 hotline.